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나은영¹ · 김현숙²

국민건강보험공단¹, 신한대학교 간호대학²

Influencing Factors of Awareness of Support for the Aged among Adolescents in Korea

Eun Young Na¹ · Hyeon Suk Kim²

¹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rporation, ²Shinhan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ABSTRACT

Purpose: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awareness of support to the elderly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350 students of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were selected as subjects and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uring 11th~15th of April in 2014. The 327 subjects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ponse rate was 93.4%. SPSS/WIN18.0 program was performed for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adolescents with parents aged over 50 compared to those with parents younger than 40 showed high level of awareness of support to the elderly. The high level of cognitive factors including image and perception towards the elderly ($t=3.07, p=.01$) were significant factors of awareness of support to the elderly. In experiential factors, adolescents with extensive influence of media and experiences with cohabitation with grandparents, and experiences with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high level of awareness of support to the elderly. Second, in regression analysis, adolescents' economic support awareness was higher with the stronger influence in the elderly-related media ($\beta=.221, p=.032$). The emotional support awareness was higher among the eldest sons ($\beta=.220, p=.017$) and perception ($\beta=.352, p=.001$) to elderly ($\beta=.221, p=.032$). Physical support awareness was higher when the positive image for the elderly ($\beta=.223, p=.016$) and the high perception towards the elderly ($\beta=.293, p=.007$). **Conclusion:** The awareness of support to the elderly should be constantly strengthened to the adolescents.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studies are not sufficient. Further research will be necessary.

Key Words: Aged, Adolescent, Awareness of suppor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가장 눈에 띄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는 급격한 고령 인구의 증가이다. 200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고, 2018

년에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다[1]

2016년도에 노인인구가 100명당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고 성인 5.5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진행은 노인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표출시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화 문제로는 노

Corresponding author: Hyeon Suk Kim

School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Euijeongbu Hoam-ro 95, Gyeonggi-do, Korea.
Tel: +82-31-870-0471, Fax: +82-31-870-1719, E-mail: september7777@hanmail.net

Received: Dec 3, 2018 / Revised: Dec 23, 2018 / Accepted: Dec 24,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 부양 부담, 세대 간 갈등, 노인 소외,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꼽을 수 있다[2]

우리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업 중심인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노인들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켰다.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은 오늘날 까지 지속되어온 부양형태로서 가족 안에서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양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과 효 의식은 퇴색되고 부양의 의무를 비용과 효율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중요한 노인부양자였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부양을 위한 인구학적 가용성을 감소시켜 가족만의 힘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3].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은 향후 증가된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가장 핵심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노인세대를 부양할 미래의 자원으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시각의 차이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해 투입할 서비스와 자원의 양 및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4].

청소년 시기는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노인부양의식 및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미래의 노인부양의 핵심 역할을 할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체험적 교육의 일환으로 인지적 교육과 경험적 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과 다양한 사회, 미디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러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노인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고 더불어 노인부양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어왔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가족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 효 의식 등이 노부모 부양의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실태[5], 둘째, 원만한 가족관계나 효의식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며[6], 셋째, 부모-조부모 친밀감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2]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국내 사회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양의식 중 노인부양의식과의 관련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족부양 체계의 유지·

발전의 가능성의 예견과 노인부양에 대한 학교교육계획과 청소년지도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관한 노력은 사회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30년 후 노인부양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노인부양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 향상, 노인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 및 합리적인 노인부양의식의 향상을 위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구학사회학적 변인과 독립변인들의 실태를 파악한다.
- 청소년들의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인구사회학적요인, 인지적요인, 경험적 요인에 따라 파악한다.
- 청소년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일부 고등학교의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 사회적 특성과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 및 노인부양의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H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유롭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급 담임이 연구의 취지와 설문응답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설문지 총 350부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340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13부를 제외하고, 32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 척도는 노인의 의존성을 해결하는 것이 부양이라는 차원에서 Tuckman과 Lorge [7]가 노인에 대한 태도 검사를 위하여 제작한 검사 항목과 Kim [8]과 Sim [9]이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부양 5문항, 정서적 부양 5문항, 신체적 부양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노인부양의식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이고, 노인부양의식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84, 정신적 노인부양의식 .91,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91이었다.

2) 인지적 요인

인지적 요인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1)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문항은 광혜원[10]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고, 노인의 이미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인의 이미지 항목은 범위를 5점 척도인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미지의 항목은 건강함과 허약한, 깨끗함과 더러운, 가난함과 부유한, 바쁘고 한가한, 행복한과 불행한, 융통성 있는 것과 완고한 등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3.2점 이상인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2.8~3.2 점은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를, 2.8 이하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81이었다.

(2)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도움 여부, 노인의 존재, 노인 생활보장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도움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인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노인의 존재는 존경의 대상, 귀찮은 대상, 측은의 대상, 조언을 해주는 대상,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의 책임 문항은 ① 자신 ② 자녀 ③ 국가 ④ 기업 ⑤ 기타 등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이다.

3) 경험적 요인

경험적 요인은 노인과 관련하여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구성하였고, 직접경험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후 노인에 대한 이해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보았고, 간접경험으로는 노인 관련 미디어 영향을 보았다. 본 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이다.

(1) 직접적 경험

직접적 경험은 총 4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1) 자원봉사 경험 여부, 2)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3) 조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의 만남 횟수 4) 자원봉사활동 후 노인에 대한 이해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묻는 문항 등이다. 자원봉사 경험과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은 예, 아니오로 질문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후 노인에 대한 이해는 5점 척도인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조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1년간 접촉 횟수 등이 직접적 경험의 질문 항목이었다.

(2) 간접적 경험

간접적 경험으로는 매스미디어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인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1) 미디어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정도 2) 노인 관련 프로그램 시청 후 조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여부 3) 노인 관련 프로그램 시청 후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4)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조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질문하였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높고, 생각이 많이나며, 긍정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 문항으로 5) 우리나라 매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는 어떤 입장에서 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① 부정적 입장 ② 중립적 입장 ③ 긍정적 입장 ④ 모르겠다 ⑤ 관심 없다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독립변인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청소년들의 노인부양의식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ANOVA)에서 유의한 차이가 파악될 경우, 집단 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인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327명을 대상으로 배경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 출생순위별로는 둘째 이상 146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외동이 가장 적었다. 성적별로는 중 187명(57.2%), 상 95명(29.1%) 순으로 중위권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보통이다 170명(52%), 잘사는 편이다가 120명(36.7%)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매우 못산다가 가장 적은 2명(0.6%)이었다. 부모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236명(72.2%), 50대 이상 91명(27.8%)으로 40대 이하가 많았다. 아버지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269명(82.3%)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214명(65.4%), 고졸 이하 113명(34.6%)으로 두 배 정도 많았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생산/서비스 168명(51.4%), 사무직 124명(37.9%)의 순으로 생산/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직업별로는 주부 199명(60.9%), 사무직 68명(20.8%)의 순으로 주부가 가장 많았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별로는 동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8.4%로 많았다(Table 1).

2.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66±0.73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노인부양의식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3.66±0.73점,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평균은 3.78±0.81점,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의 평균은 3.51±0.94점으로 나타나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낮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r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n (%)
Sibling order	Only child	47 (14.4)
	The oldest child	134 (41.0)
	Over the second child	146 (44.6)
Grade	Good	95 (29.1)
	Fair	187 (57.2)
	Poor	45 (13.8)
Level of economic status	Very poor	2 (0.6)
	Poor	26 (8.0)
	Moderate	170 (52.0)
	Rich	120 (36.7)
	Very rich	9 (2.8)
Parent age	≤ Age 40	236 (72.2)
	≥ Age 50	91 (27.8)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graduation	58 (17.7)
	≥ College graduation	269 (82.3)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graduation	113 (34.6)
	≥ College graduation	214 (65.4)
Job of father	Unemployed	10 (3.1)
	Production/service worker	168 (51.4)
	Office worker	124 (37.9)
	Manufacturer	25 (7.6)
Job of mother	Housewife	199 (60.9)
	Production/service worker	56 (17.1)
	Office worker	68 (20.8)
	Profession	4 (1.2)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Yes	136 (41.6)
	No	191 (58.4)
All		327 (100.0)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의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경우 40대 이하보다는 50대 이상의 부모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및 정서적,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았고 정서적($t=-2.35, p=.019$) 및 신체적 노인부양의식($t=-2.35, p=.01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에서는 노인부양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인지적 요인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지적 요인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2점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노인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33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노인부양의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경제적 노인부양의식: 4.12 ± 0.68) 라는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경제적 부양의식: 3.10 ± 0.38)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았고($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 존재 인식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노인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경우($p < .001$)에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았고(경제적: 3.84 ± 0.83 , 정서적: 4.01 ± 0.82 , 신체적: 3.72 ± 1.02), 귀찮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노인부양의식을 보였으며, 특히 이 경우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에서 가장 낮은 점수(1.76 ± 0.83)를 보였다($p < .001$).

노인 생활보장의 책임에 대한 노인부양의식은 국가의 책임은 45%, 자녀의 책임은 37.1%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자녀의 책임보다 높았다. 경제적 부양의식인 경우 자녀(3.81 ± 0.68), 기타(3.77 ± 0.77), 국가(3.74 ± 0.86), 자신(3.61 ± 0.86), 기업(3.52 ± 0.72)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서적 부양의식인 경우 자녀(3.95 ± 0.77), 국가(3.95 ± 1.08)가 높았고($p = .05$), 신체적 부양의식인 경우 자녀(3.80 ± 0.87), 기타(3.54 ± 0.75), 국가(3.51 ± 0.87)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경험적 요인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경험적 요인 중 간접경험인 노인 관련 미디어 영향은 평균 2.98 ± 0.64 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경험인 미디어 영향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는 미디어 영향이 클수록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직접경험인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차이를 보면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부양의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응답자에서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점수(3.93 ± 0.75)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청소년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의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은 3.79,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은 3.88,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은 3.59로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에서

가장 높았고,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에서 가장 낮았다(Table 2).

3.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노인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출생순위와 성적, 경제적 수준을 다중회귀 분석에 포함시켰고, 인지적 요인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존재에 대한 인지변수를 그리고 경험적 요인에서는 미디어의 영향과 노인과의 봉사활동 경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과 만남 빈도를 포함 하였다. 포함된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경험적 요인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인지적 요인 중 노인에 대한 인지($\beta = .316, p = .003$) 변수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인지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3.59, p = .01$), 이들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2로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2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경제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68, p < .001$). 노인 관련 미디어 영향에서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노인 관련 미디어의 영향이 클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았다($t = 2.18, p = .05$)(Table 4).

정서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77, p < .001$). 형제순위($t = 2.43, p = .05$), 노인에 대한 인식($t = 3.44, p = .01$)에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조부모와 동거여부($t = -2.492, p < .05$)에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다. 즉 장남인 경우,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았고,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을수록 정서적 부양의지가 낮았다(Table 5).

신체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8%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2.71, p = .01$). 노인에 대한 이미지($t = 2.44, p = .05$)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노인 존재에 대한 인식($t = 2.77, p = .01$)이 높을수록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Table 2. Differences of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based on Social, Perceptive and Experiential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Economical support		Emotional support		Physical support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Differences of elderly support based on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	Parent age	Parent age younger than 40 (n=236)	3.63±0.78	-1.42 (.157)	3.72±0.85	-2.35 (.019)	3.42±0.98	-2.81 (.005)
		Parents age over 50 (n=91)	3.75±0.59		3.95±0.67		3.74±0.77	
	Grade	High (n=95)	3.75±0.69	1.15 (.319)	3.85±0.73	2.49 (.005)	3.58±0.88	0.41 (.667)
		Medium (n=187)	3.64±0.73		3.75±0.83		3.48±0.94	
		Low (n=45)	3.57±0.83		3.45±0.93		3.46±1.06	
		All	3.66±0.73		3.71±0.81		3.51±0.94	
	Level of economic status	Very poor ^a (n=2)	3.98±0.72	2.86 (.043)	3.65±0.78	1.03 (.298)	3.42±1.02	1.85 (.137)
		Poor ^b (n=26)	3.83±0.88		3.73±0.89		3.61±1.12	
		Moderate ^c (n=170)	3.52±0.54	b < d	3.59±0.67	a < c, d	3.24±0.65	b < d
		Rich ^d (n=120)	3.71±0.84		3.88±0.74	c < d, e	3.56±0.77	c < e
		Very rich ^e (n=9)	3.26±0.42		3.65±0.79		3.99±0.75	
	All	3.66±0.73		3.68±0.83		3.51±0.87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graduation (n=58)	3.57±0.65	-1.09 (.275)	3.74±0.79	-0.47 (.638)	3.46±0.83	-0.42 (.676)
		≥ College graduation (n=269)	3.68±0.75		3.79±0.82		3.52±0.96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graduation (n=113)	3.67±0.68	0.08 (.939)	3.84±0.79	1.01 (.315)	3.58±0.82	0.93 (.353)	
	≥ College graduation (n=214)	3.66±0.76		3.75±0.83		3.47±0.99		
Differences of elderly support based on perceptive factors	Living with elderly	Never helpful ^a (n=4)	3.10±0.38	7.93 (< .001)	2.88±0.44	10.90 (< .001)	2.90±0.35	5.68 (< .001)
		Not-helpful ^b (n=39)	3.32±0.93		3.32±1.03		3.15±1.14	
		Moderate ^c (n=156)	3.57±0.69	b < d, e	3.68±0.75	a < e	3.41±0.91	
		Helpful ^d (n=101)	3.83±0.63		4.02±0.70	b < d, e	3.68±0.83	b < e
		Very helpful ^e (n=27)	4.12±0.68		4.27±0.72	c < d, e	4.05±0.88	c < e
	All	3.66±0.73		3.78±0.81		3.51±0.94		
	Perception of elderly existence	Respect object ^a (n=65)	3.84±0.83	3.69 (.006)	4.01±0.82	6.77 (< .001)	3.72±1.02	5.48 (< .001)
		Tiresome object ^b (n=5)	2.68±0.33		2.23±0.63		1.76±0.83	
		Pathetic object ^c (n=29)	3.60±0.65	a > b	3.63±0.76	a, c > b	3.48±0.78	a, c > b
		Advice object ^d (n=215)	3.65±0.71		3.63±0.76	b < d, e	3.48±0.78	b < d, e
		Others ^e (n=13)	3.43±0.61		3.53±0.73		3.54±0.71	
	All	3.66±0.73		3.78±0.81		3.51±0.94		
	Responsibility of guarantee elderly living	Self ^a (n=21)	3.61±0.86	2.92 (.022)	3.75±1.02	3.18 (.014)	3.30±1.18	5.38 (< .001)
		Sons & daughters ^b (n=122)	3.81±0.68		3.95±0.77		3.80±0.87	
Nation ^c (n=149)		3.74±0.86	b > c	3.95±1.08	b > c	3.51±0.87	b > c	
Enterprise ^d (n=14)		3.52±0.72		3.62±0.78		3.30±0.93		
Others ^e (n=21)		3.77±0.77		3.87±0.73		3.54±0.75		
All	3.69±0.71		3.83±0.79		3.49±0.89			
Differences of elderly support based on experiential factors	Media influence	Good ^a (n=61)	4.03±0.77	14.06 (< .001)	4.16±0.76	12.21 (< .001)	3.88±0.93	9.23 (< .001)
		Fair ^b (n=173)	3.66±0.65		3.79±0.75		3.52±0.84	
		Poor ^c (n=93)	3.42±0.76	a > b, c	3.52±0.87	a > b, c	3.24±1.03	a > b, c
		All	3.66±0.73	b > c	3.78±0.81	b > c	3.51±0.94	b > c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Yes (n=136)	3.72±0.72	1.27 (.207)	3.93±0.75	2.82 (.005)	3.60±0.88	1.42 (.158)
		No (n=191)	3.62±0.74		3.68±0.84		3.45±0.97	
	Experience of volunteer	Yes (n=130)	3.79±0.70	2.52 (.012)	3.88±0.79	1.87 (.062)	3.59±0.94	1.33 (.183)
		No (n=197)	3.58±0.74		3.71±0.82		3.45±0.93	
	Understanding of elderly after volunteer experiences	Very poor ^a (n=3)	3.23±0.73	9.39 (< .001)	3.45±0.75	3.93 (.010)	3.22±0.08	1.66 (.180)
		Poor ^b (n=11)	3.46±0.71		3.70±0.62		3.39±0.71	
		Moderate ^c (n=47)	3.63±0.65	a, b, c, d < e	3.78±0.79	b, c, d < e	3.47±0.98	b, c, d < e
		Good ^d (n=58)	3.79±0.62		3.85±0.79		3.62±0.88	
		Very good ^e (n=11)	4.73±0.53		4.64±0.59		4.15±1.23	
	All	3.88±0.79		3.88±0.79		3.59±0.94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f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among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1.322	0.922		1.43	.154
Socio-economic factor	Sibling order	0.109	0.096	.104	1.14	.256
	Grade	-0.069	0.107	-.060	-0.65	.520
	Level of economic status	0.077	0.098	.074	0.79	.432
Perceptive factor	Image for elderly	0.243	0.148	.146	1.65	.103
	Perception of elderly existence	0.273	0.089	.316	3.07	.003
Experiential factor	Media influence	0.122	0.106	.117	1.15	.253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0.191	0.106	.178	1.80	.075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0.212	0.139	-.139	-1.53	.130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0.100	0.097	-.099	-1.03	.305

F=3.59, $p < .01$, $R^2 = .222$

Not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SE=standard error.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Awareness of Economic Elderly Support among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2.172	0.889		2.44	.016
Socio-economic factor	Sibling order	0.018	0.092	.018	0.20	.844
	Grade	-0.136	0.103	-.122	-1.31	.192
	Level of economic status	0.002	0.094	.002	0.02	.986
Perceptive factor	Image for elderly	0.062	0.142	.039	0.44	.662
	Perception of elderly existence	0.157	0.086	.188	1.83	.070
Experiential factor	Media influence	0.223	0.102	.221	2.18	.032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0.196	0.102	.189	1.92	.058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0.072	0.134	-.049	-0.54	.593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0.059	0.093	-.061	-0.63	.529

F=3.68, $p < .001$, $R^2 = .226$

Not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emotional elderly support; SE=standard error.

논 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에 직면하게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노인부양의식을 파악하여,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 프로그램 계획과 청소년 지도지침의 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 평균점수(M=3.66)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2,11,12]와 일치하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노인부양의식 수준은 높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노인부양의식(M=3.78)이 가장 높았으며 경

제적 노인부양의식(M=3.66), 신체적 노인부양의식(M=3.51)의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수준은 다른 연구[13]에서도 높았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나 가족수가 많고 농업 지역에서 성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았다. 이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소홀해지고 가족 사이가 밀접하지 않아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구결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이 현대사회 속의 전통적인 가족 윤리로서 여전히 그 가치를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부양의식을 더욱 발전 및 유지 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 맞는 가치관으로 재정립 및 발전시켜야할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Awareness of Emotional Elderly Support among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1.962	0.990		1.98	.050
Socio-economic factor	Sibling order	0.250	0.103	.220	2.43	.017
	Grade	-0.154	0.115	-.125	-1.34	.182
	Level of economic status	0.063	0.105	.056	0.60	.551
Perceptive factor	Image for elderly	0.202	0.159	.112	1.27	.206
	Perception of elderly existence	0.328	0.095	.352	3.44	.001
Experiential factor	Media influence	0.079	0.114	.070	0.69	.491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0.142	0.114	.122	1.24	.217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0.371	0.149	-.226	-2.49	.014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0.168	0.104	-.156	-1.62	.108

F=3.77, $p < .001$, $R^2 = .231$

Not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economic elderly support; SE=standard error.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Awareness of Physical Elderly Support among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0.295	1.211		-0.24	.808
Socio-economic factor	Sibling order	0.032	0.126	.024	0.25	.801
	Grade	0.100	0.141	.068	0.71	.481
	Level of economic status	0.170	0.128	.127	1.32	.189
Perceptive factor	Image for elderly	0.473	0.194	.223	2.44	.016
	Perception of elderly existence	0.323	0.117	.293	2.77	.007
Experiential factor	Media influence	0.073	0.139	.055	0.52	.604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0.246	0.140	.179	1.76	.081
	Experience of cohabit with grand parents	-0.160	0.182	-.082	-0.88	.381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0.058	0.127	-.045	-0.46	.648

F=2.71, $p < .01$, $R^2 = .178$

Note. Dependent variable: awareness of physical elderly support; SE=standard error.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부모 부양의식을 비교한 연구결과[4]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노인부양의식의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 일본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낮고 미국이나 중국대학생 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인 공적부양제도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어 노인부양의식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국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유교문화로 혈연 중심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 반드시 혈연에 의한 가족계승은 아닌 것, 그리고 한국이 관계지향적인 사회구조라면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하여 노인부양의식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본과 비교한 이 연구에서 한국 학생의 경우 경제적 노인부양(M=4.36), 정서적 노인부양(M=4.16), 신체적 노인부양(M=4.09)의 순서로 노인부양의식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인 정서적 부양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적 노인부양(M=2.10), 신체적 노인부양(M=2.04), 정서적 노인부양(M=1.90) 순으로 정서적 노인부양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노부모가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질병이 생길 경우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한국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일본 학생의 경우는 한국 학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노부모에게 시사적인

애기나 최근 뉴스를 말씀드리는 것에 높은 점수를 보여 노인부양의식에서 두 문화권의 차이를 보여주었다[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선행연구[2]와 일치했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가 40대 이하인 경우보다 정서적 노인부양의식과 신체적 부양의식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한 차이($p=.01$)가 있었다. 즉 부모의 연령이 높은 경우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14] 결과와 일치했다. 청소년은 조부모를 부양할 때 도움이 되는 점으로 가정화목을, 부모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어려운 점은 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부모는 조부모와의 의견 차이를 제시하였다[15].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을 인지적 요인과 경험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지적 요인 중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에 대한 이미지($M=2.72$)는 보통 수준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10]와 일치했다. 노인에 대한 인식($M=3.33$)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는데, 인지적 요인 중 첫째,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에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는 노인세대와 청소년의 공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가족친밀감을 향상시켜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6,16]. 둘째, 노인 존재의 인식에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을 조언을 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5.8%로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 삶의 지혜나 경험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생활보장은 자녀의 책임(37.1%)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국가의 책임(45.0%)이라는 경우보다 낮게 나와 이는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뿐 아니라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보여주었다[16]. 청소년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가족책임이라는 기존 전통적인 사고에서 점차 변화하여 가족 부양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7-19].

노인과 관련한 경험적 요인과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 관련 미디어 영향은 2.98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청소년이 노인 관련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노인부양의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디어는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노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영향만으로도 노인부양의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노인에 관한 가치관과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노인과 관련된 경험적 요인 중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정서적 친근감을 증대시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한다고 보고하였고[2,20-22].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친밀감 그리고 만남이나 전화 횟수가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23,24]. 그 중 조부모와의 만남 횟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다[24]. 또한 제주 지역 청소년 대상 연구[2]에서 여학생이 조부모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이어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감정적 이해 및 긍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부모와의 단순한 동거경험이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에 따라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25]. 일본의 경우 한국 학생에 비해 조부모와의 만남의 빈도는 높지만 노인부양의식은 낮게 나왔는데[4] 이는 오히려 만남이 노인부양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부모의 생존과 단순한 동거경험이나 잦은 만남보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질적인 측면의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향후 바람직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동거부양과 별거부양 모델에 대한 부분과[26] 노인부양의 사회화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27].

셋째,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12$), 정서적 노인부양의식과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모두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넷째, 자원봉사 후 노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한 학생의 경우 경제적 및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노인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22,28,29]. 청소년에게 의무적인 학습 참여나 다소 강제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많은 것으로 인해 노인부양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인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노인에 대한 특성과 노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직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기 전의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노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 전후의 지식변화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므로[26,28,30] 학교 교육을 적극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과 또한 청소년들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일정 시간을 참여하여 봉사하거나 노인들에게 교육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다른 연구결과[11]와 일치한다. 노인 관련 미디어의 영향이 클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았고, 장남인 경우,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았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노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지적 요인·경험적 요인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노인부양의식은 부모의 연령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지적 요인 중 노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경험적 요인 중 노인 관련 미디어의 영향이 많은 경우,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에서

부터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대학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양과목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행동과 가치관은 교육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므로, 가정과 학교 및 사회 전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SNS 등 관련한 인터넷매체, TV 프로그램,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꾸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시설이나 독거노인 등을 방문한다거나, 노인과 접촉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각각의 노인에게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거나,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용을 모르는 노인을 위한 교육을 청소년들이 실시하는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노인부양의식이라는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가치관을 현대 사회에도 계속 함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6 Estimation of future population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7 [cited 2018 November 15].
2. Jeong DH. Study of youth's perceived family strength, parents-grandparents' intimac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9;14(3):29-49.
3. Jung KH. Current status of family care-giving for older persons and policy implications.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Forum*. 2003;79:22-32.
4. Kim YJ, Chang SC. Comparison of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Journal of Japanese Culture*. 2008;39:211-229. <https://doi.org/10.21481/jbunka..39.200811.211>
5. Kim YH. A study on the state of the juveniles' consciousness of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Journal of Research, Ulsan Science University*. 2003;29(2):41-59.
6. Lim JS, Chung SD. Factors affecting the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young and middle age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7;58:

- 37-66.
7. Tuckaman J, Lorge I. The influence of a course on the psychology of the adul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elder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1952;43:400-407. <https://doi.org/10.1037/h0062469>
 8. Kim TH. A Study on elderly support in Korea: based on status of family support and support satisfaction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1981. p. 1-170.
 9. Sim UJ. A comparative study on generation gap of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based on preparing support, support and passive support generation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1999. p. 1-117.
 10. Gwak HW. A study on elderly image of adolescent perception: adolescents in Chungnam Dangjin-gun [master's thesis]. Daejeon: Hannam University; 2005. p. 1-75.
 11. Kim YJ, Ham JH, Lee CS. A study on generation gap and variables of caregiving awareness: focused on view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5;12(4):243-261.
 12. Lee CS, Kim YJ.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motive and awareness: focused on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resid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6;13(6):101-125.
 13. Jeong HS, Lee JL, Park CM.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family support and care's socialization in the elderl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1;21(1): 93-114. <https://doi.org/10.4332/KJHPA.2011.21.1.093>
 14. Choi SW, Chung HJ, Seo BS. A Study on values of familism and awareness of parental support among students. *Korea Life Science Academic Society*. 1997;15:83-99.
 15. Park YS, Park YJ, Nam I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elderly parents car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Korea Psychological Society: culture and social problem*. 2017;23(3):409-449. <https://doi.org/10.20406/kjcs.2017.08.23.3.409>
 16. Choi YS, Oh YJ, Moon YJ.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older generations: focusing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elderly's contribution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of Contents Association*. 2015;15(5):228-241. <https://doi.org/10.5392/jkca.2015.15.05.228>
 17. Kim YH. A study on the state of the juveniles' consciousness of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Journal of Research, Ulsan Science University*. 2003;29(2):41-59.
 18. Kim YG. Family suppor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252:6-28.
 19. Kim HK, Park C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comparison analysis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grou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0;30(1):170-194. <https://doi.org/10.15709/hswr.2010.30.1.170>
 20. Hong DG, Ha KY. Effect of grand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2;11(2):107-121.
 21. Park SL.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d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elder knowledge. *Research of Social Science*. 2015;22(1):279-302.
 22. Lee MS, Yang SN.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10(8):265-273.
 23. Kim YJ, Chung SA. Adolesc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1;19(6):173-183.
 24. Kim YJ, Lee CS. A study on awareness of living together with their off-springs in old age -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3;10(3):65-82.
 25. Jang YO. The influences of mother's support behavior for the grandparent and the experience of the cohabitation with their grandparent on adolescent's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2;22(1):191-207.
 26. Lee NS. A study on supporting the aged. *Korean Journal of Care Work*. 2006;2(3):172-193.
 27. Jeong HS, Lee JL, Park CM.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family support and care's socialization in the elderl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1;21(1):93-114. <https://doi.org/10.4332/KJHPA.2011.21.1.093>
 28. Kim WT, Cho MK.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 for elderly of students in social welfare major among Korea and Jap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15;65:287-302. <https://doi.org/10.18631/jalali.2015.65.016>
 29. Park IJ, Choi WS, Kim AH.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optimism and family-control on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8;17(1):13-26. <https://doi.org/10.5934/kjhe.2008.17.1.013>
 30. Lee JM, Lee SY. The Impact of Education of Gerontolog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5; 29:259-283.